

새정치 지지율 상승 이끈 ‘우윤근 효과’

합리적 대화·소통으로 ‘발목잡는 야당’ 이미지 탈피

세월호특별법 등 굵직한 현안 성사... 새누리 탄밀 추격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입의번호결기(RDD) 방식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33.8%로, 새누리당(34.7%)과 불과 0.9%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3월 새정치연합 창당 이래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새정치연합은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파문이 일었던 지난해 6월 셋째주 같은 기관 여론조사에서 35.0%의 지지율로 창당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은 39.1%로 6월 첫째주(45.2%) 때보다 6.1%포인트나 떨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잠시뿐,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곧두박질해 지난해 9월 넷째 주에는 창당 후 최저치인 18.0%를 기록한 반면 새누리당은 44.2%로 다시 정상시 지지율(40%대 초중반)을 회복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도 이를 기점으로 다시 지지율을 회복, 최근 조사까지 지지율이 15.8%포인트나 올랐다. 새누리당은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이완구 총리 지명 파문으로 34.7%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잇단 실책에 2·8 전당대회에

■ 여야 지지율 추이(%)

	새누리	새정치
9월 넷째주	44.2	18.0
10월 첫 주 (이완구 취임직전)	44.2	19.1
12월 첫 주	42.6	22.7
2015년 2월 셋째주 (이완구 동의안 처리 직후)	34.7	33.8

(자료:리얼미터)

따른 ‘컨벤션 효과’가 겹쳐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 탈피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이 같은 당의 분위기를 만든 ‘1등 공신’인 우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지율 상승과 우 원내대표의 상관관계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여실이 드러난다. 우 원내대표가 선출된 시기는 지난해 10월9일. 직전 10월 첫째 주

정치연합 지지율은 19.1%로 전주 기록인 18.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취임 후 우 원내대표는 우선, 동료 의원들과 정보 공유,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해 당내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 또 여당과 관계에 있어 대화와 상생을 기조로 여야 격돌을 피했다. 싸울만 하는 야당의 모습을 탈피한 것이다. 실제로 합리적 협상으로 ‘세월호 3법’을 처리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또 예산안을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했다.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때문에 우 원내대표가 ‘야성(野性)’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에서 야당 주장을 상당 부분 관철했고 중단 위기에 몰렸던 무상보육에서도 중앙정부 지원을 유지시켰다. 자원 외교 국정조사도 성사시켰다. 이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꼼꼼한 검증으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 각오로 경제혁신 이뤄내야”

취임 2년 박대통령, 청와대 직원들에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로 경제혁신을 이뤄내고 통일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2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개인적인 영달을 떠나 사명감과 충정심을 갖고 이런 일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와대 자체가 국정운영을 위한 TF라는 그런 마음으로 혼연일체를 함께 일을 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한 사람의 실수나 일탈행위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 조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직원들의 노고를 격

려하고 집권 3년차를 맞아 심기일전해달라는 의미에서라고 민경욱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제를 선정, 여당이 전면에서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광주 서울 보선 1대 1 구도 목표”

강용주·나간채·이상갑 후보 추천 받았지만 접촉은 안해

가칭 ‘국민모임’ 창당을 추진중인 정동영 전 의원은 “4월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국민모임 후보의 1대 1 구도를 만들어 광주의 일당 체제를 깨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독자 후보를 내 (새정치연합) 일당 체제를 깨는 선봉에 서겠다”면서 “광주의 1당 독점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야당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새정치연합 후보 공천에 맞춰 가칭 ‘국민 모임’ 신당 후보를 낼 것이다”면서 “앞으로 매주 광주에 내려올 생각이며, 선거 때는 광주에 상주해 신당 후보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자칭 ‘국민모임’의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밝힌 정 전 장관은 서구를 후보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천받은 대상

자들을 거른다고

정 전 의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과 모 방송의 ‘말바우 아집’으로 유명한 지정남씨, 나간채 교수, 이상갑 변호사 등을 추천받았다”면서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접촉을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전 배 전 법무부장관 영입에 대한 질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 장관이 선택할 일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잔류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짧게 답변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재야 진영은 25일 ‘4·29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위 공동위원장 선출하고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이들은 향후 단일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당 및 정치조직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우윤근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왼쪽에서 세번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석사무부총장 등 친노계 임명 관련 주승용 최고위원 “당무 거부”

새정치 당직 인선싸고 ‘계파갈등’ 조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5일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수석사무부총장에 김경협 의원과 전략기획위원장에 진성준 의원을 임명한 것과 관련,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이 일방적으로 의도적 인선이라고 반발, ‘당무 거부’ 입장까지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당직 인사에 대해 말을 아껴 왔지만 총선 실무 핵심 요직인 수석사무부총장과 전략기획

위원장에 친노 인사들을 임명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수석 최고위원은 이어 “오늘 당무회의에 불참한 것은 물론 추후 최고위원 회의에도 당분간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일방적으로 당직 인선을 밀어 붙이는 상황에서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수석 최고위원은 “그동안의 당직 인선에 대해 문 대표 측에서는 ‘당평 인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영록 대변인을 제외

하곤 지난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을 당직에 중용하는 ‘보은 인사’ 측면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경협, 진성준 의원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면서 “하지만 두 사람이 범친노로 분류되고 있어 추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주 수석 최고위원은 “수석 사무부총장에 이어 조직담당 부총장도 친노 인사를 중용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며 “친노

인사들이 공천 실무 당직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수석 최고위원이 문 대표의 당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4월 보궐선거 공천 등을 앞두고 친노와 비노 진영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문 대표는 공천 개혁 등 혁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밀고 나갈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날 인선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날 공천관리위원장에 양승조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장과 예산결산 위원장에는 각각 최규성, 장병만 의원을 임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즈니스호텔 광주 상륙!! 긴급임대

남구청이전 완료
광주제2지하철(순환선) 백운역 확정
백운고가도로 철거후 지하화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대)확보
현금투자 최적지임
백운광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투자가치 1순위 지역

8층 (120명)	중식당, 한의원, 뷔페식당
7층 (120명)	개인병원, 의원, 스키아리운지
6층 (120명)	비즈니스 호텔
5층 (120명)	비즈니스 호텔
4층 (120명)	비즈니스 호텔
3층 (120명)	비즈니스 호텔
2층 (120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120명)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및사시실, 한의원, 판매시설,창치전문점
지하1층 (270명)	스포츠타시지, 유희/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6200명)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클럽

국제비즈니스호텔
구백운동 국제관광호텔 (병원 개인의원 약국한의원 등)
(백운동 국제비즈니스호텔)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21세기 산업개발
010-2112-323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교육, 말씀, 기도, 상담
행복한 목회현장!!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2일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오전 9:00~1: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현재 접수중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5년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혜택 : 매학기 신학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광신대학교